

明版本『二程全書』의 17세기 조선 및 일본에서의 수용 양상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e Phase of *Erchengquanshu*-Ming Edition
in Joseon and Japan in the 17th Century

李 裕 利 (Lee, Eury)*

◁ 목 차 ▷

- | | |
|--------------------------|-------------------|
| 1. 緒 論 | 3.1 조선에서의 수용 |
| 2. 명대『二程全書』의 편찬과 간행 | 3.2 일본과의 수용 양상 비교 |
| 2.1 명대『이정전서』의 간행 | 4. 結 論 |
| 2.2 명판본『이정전서』의 체제 변화 | <참고문헌> |
| 3. 17세기 조선 및 일본에서의 수용 양상 | |

<초 록>

이 연구는 17세기가 동아시아 삼국 모두 성리학을 수용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명판본『二程全書』가 조선과 일본에 각각 수용된 양상을 서적교류사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程顥 및 程頤의 학문은 성리학 성립에 큰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에 그들의 어록과 문집 등은 송대부터 간행되어 유통되었다. 그러나 주희가 죽은 후 성리학의 방향은 실천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편, 과거제로 인해, 성리학의 이론적 연구는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로소 成化 연간(1465-1488) 이후에야 출판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간행되지 않았던 경서를 비롯한 유학서, 고전 등이 재간되었다. 『이정전서』는 1476년에 처음 편찬 및 간행되어, 적어도 6차례 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 중 일부가 16세기 조선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17세기에는 1606년에 徐必達이 校刊한 판본이 조선과 일본에 각각 전해져 수용되었다. 조선에서는 원본이 소장되거나, 번각되거나, 기존 유통 판본의 내용에 없는 내용만 보완하는 방식으로 간행되거나 하여 개인 및 관청에서 수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상업 출판으로 간행되었는데, 에도 후기에는 관학인 昌平坂學問所에도 소장되기도 하였다.

要語: 程顥, 程頤, 二程全書, 徐必達, 河南程氏遺書, 동아시아 서적교류사, 昌平坂學問所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book exchange in the East Asia in the 17th Century by *Erchengquanshu* (二程全書) published in Ming period. This book is about Chenghao (程顥) and Chengyi (程頤)'s quotation that had been recorded by their students or a collection of works and so on. It had been published since Song (宋) period because they established theoretical basis for the doctrines of Chu-tzu (朱子學). But It was Ming period Chenghua (成化) in 1476 that was first published in the form of collection, and It was six times to publish during Ming period at least. These six editions differ in included chapters and part of text each other. Among those, there are two editions published in Joseon until the 16th Century. Meanwhile, Japan began to be accepted doctrines of Chu-tzu in the 17th century. And this Ming edition published by Xubida (徐必達, 1562-1645) in 1606 had been introduced to Joseon and Japan each. And this book was accepted by publishing or holding by an individual or the government services in each country. But it was different publisher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case of Joseon, It was government, but in Japan, it was the publishers. Therefore, This ming edition is valuable as research material for study about the book exchange in the East Asia in the pre-modern period.

Key words: *Erchengquanshu*(二程全書), Xubida(徐必達), Henanchengshiyishu(河南程氏遺書), Chenghao, Chengyi, Book Exchang in East Asia

* 문화재청 인천항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dreamy6214@naver.com)

투고일: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7일
서지학연구, 제80집, 381-401,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381>

1. 緒 論

전근대 시기까지 중국에서 전해진 서적들이 한반도와 일본에서 각각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두 나라가 중국과 교류한 지역과 방법은 동일하지 않았고, 여기에 상이한 정치 체제 등과도 결부되어,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두 나라에서 수용된 중국 서적에는 차이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중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수용되고 있던 유학서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것이다. 유학은 중국에서 漢代부터 관학으로 수용된 이래 청대까지 시대마다의 주안점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변화를 그때마다 주변국에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조선에서 성리학이 국가 운영의 틀로 작용하는 15-16세기는 일본과의 경향 차이가 큰 시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일본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동안, 조선 및 중국에서 유입된 성리학서는 상업 출판의 발달과 더불어 보다 널리 유통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사상사적으로는 물론, 서적교류 사적으로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서적교류 양상과 이로 인한 영향 관계 및 수용 양상 비교 등을 통해 삼국의 학술과 문화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二程全書』는 성리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程顥(1032-1085)와 程頤(1033-1107)의 저술을 집성한 것이다. 송대부터 여러 二程書가 간행되어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대에 들어와서야 全書 형태로 유통된 것은 당시의 출판 및 학술 경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희 사후, 제자들은 이미 학문이 주희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여겨, 이론을 발전시키기보다 선학의 학문 전승과 심성 수양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원대부터 과거제가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학문은 과거를 급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성리학의 이론 연구를 둔화시켰다. 더욱이 과거에서 출제되는 『五經』의 범위를 古注疏와 신주석 모두 두고 있다 해도 주희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점차 주희에 비해 북송대 학자들의 저술이 중시되지 않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명초를 이끌었던 학자들은 원대의 성리학을 계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成祖(1360-1423)의 명으로 1415년(永樂 13)에 『五經大全』·『四書大全』·『性理大全』이 편찬되어 과거 수험서로서 보급되었다. 이로 인해 程朱學은 명대에 들어와서 ‘正學’으로서의 권위가 더욱 공고해졌으나 학문의 속화는 보다 가속화되었고, 이에 학자들은 실천을 중점에 둔 새로운 공부 방법을 궁구하게 되면서 정주학이 심학화되는 경향을 보인다.¹⁾

한편, 원대부터 침체된 출판은 成化 연간(1465-1487)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상업 출판은 출판의 활성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현전본을 통해 성화 연간부터 출판량이 급증함을 여러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바가 있다.²⁾ 특히, 성화 연간부터 嘉靖 연간(1522-1566) 사이에 간행된 서적

1) 박길수, “명초 정주학과의 심학화 경향과 사상적 의의,” 『동양철학』 제39집(2013), 29-32.

에 경서류와 유가류, 그리고 문집류의 비중이 이전 시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³⁾ 이는 출판이 오랜 기간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희 및 정호·정이 등의 송대 유학자의 저서나 「史記」 및 「文選」과 같은 고전 등 학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적이 우선적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 「朱子大全」(1460년)과 「朱子語類」(1473년)도 이 시기에 다시 간행되었다.

「이정전서」의 편찬과 간행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1472년(성화 8)에 浙江 布政司 張瓚이 간행한 「河南程氏遺書」의 서문에는 주자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행이 몇 차례 끊겨 책이 겨우 남아 본 사람이 매우 적었다는 내용이 있다.⁵⁾ 이를 통해 이정서 역시 출판의 침체로 인해 책판이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78년에 작성된 婁諒의 서문에는 “遺書”·“外書”·“文集”은 판목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가 최근 “유서” 및 “외서”는 浙江에서, “문집”은 廣信府(江西省)에서 간행되었다고 하였다. 누량은 이에 대해 그동안 주희에 비해 정이 및 정호의 저술은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⁶⁾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서적교류사 및 사상사적으로 17세기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여, 조선과 일본에 전해진 명판본 「이정전서」의 판본을 알아보고, 이를 각 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명대 「이정전서」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 알아본 후, 17세기 조선과 일본에 전해진 판본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현전본을 통해 각 국에서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삼국의 서적교류 양상의 일단면과 17세기 각 국의 학술 및 출판문화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명판본을 확인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명대 「二程全書」의 편찬과 간행

2.1 명대 「이정전서」의 간행

정호·정이의 학문은 남송대 주희에 의해 정리 및 해설되고 「伊洛淵源錄」을 통해 학통으로 연결되면서, ‘程朱學’으로 불릴 정도로 이들은 성리학의 정통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과 관련된 서적은 송대에 이미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었는데, 현재 宋版本과 元版本 「河南程氏遺書」

2) 大木康 著,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서울: 소명출판, 2007). ; 황지영, 「명청 출판과 조선 전파」(서울: 시간의 물레, 2012). ; 井上進 著, 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역, 「중국출판문화사」(서울: 민음사, 2012).

3) 황지영(2012), 46.

4) 井上進, 「明清學術變遷史:出版と傳統學術の臨界點」(東京: 平凡社, 2012), 57-64.

5) 張瓚, “重刊河南程氏遺書序.”

“然自經朱子之後, 迄今幾四百年, 板刻幾弊, 而書僅存, 得見之者寡矣, 豈非學者之不幸哉.”

6) 이상 누량의 서문 내용은 井上進 著, 이동철 외 역(2012), 264에서 재인용.

가 각각 중국 국가도서관과 東北師範大學에, 그리고 원판본 『河南程氏外書』가 東北師範大學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⁷⁾ 이처럼 각각 간행되고 있던 주요 서적인 “유서”⁸⁾ · “외서”⁹⁾ · “문집”¹⁰⁾ · “經說”¹¹⁾을 ‘程氏四書’라 일컫기도 하였는데, 전서 형태로 편집되어 간행된 것은 명대에 이르러서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정전서』는 현전본 중 1476년(成化 12) 段堅(1419-1484)¹²⁾ 刻本이 가장 앞선다. 이 책에 수록된 교정자 李賢의 서문에는, 이정의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나 배우는 이들이 이정의 모든 글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 유감스럽다면서 國子監丞 閻禹錫이 여러 이정서를 모아 간행하고자 하였으며, 단견이 삼년상을 마치고 남양부에 부임하여 간행하였다고 하였다.¹³⁾ 또한 이후에 간행된 판본에 수록된 1498년(弘治 11) 李瀚의 서문에 의하면, 天順 연간(1457-1464)에 국자감승(염우석)과 함께 구한 『四書』와 譚元이 수집한 遺文 및 遺事を 한 책으로 엮었는데, 이를 이현이 ‘이정전서’라 제목을 붙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 두 내용을 통해, 『이정전서』는 천순 연간에 처음 편찬되어 이현과 염우석에 의해 교정된 후 1476년에 단견이 자신의 부임지였던 南陽府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이 간행되기 전후로는 주로 각각의 형태로 읽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楊士奇(1365-1444) 등이 1441년(正統 6)에 편찬한 『文淵閣書目』에는 『程氏經說』 · 『程子粹言』 · 『程氏遺書』 · 『程氏外書』 · 『程氏文集』 · 『程氏發蒙新書』 · 『二程語錄』 · 『二程門人集師說』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1472년(성화 8)에 浙江 布政司 張瓚이 『하남정씨유서』를 간행하였으며, 錢溥(1408-1488)

- 7) 송판본 『하남정씨유서』 및 원판본 『하남정씨외서』의 서지사항과 해제는 阿部隆一, 『增訂中國訪書志』(東京: 汲古書院, 1983)의 332-333 및 720-721에 상세하다.
- 8) 곧 『河南程氏遺書』이다. 1168년(乾道 4) 주희가 제자들이 기록한 정이 및 정호의 어록을 편집한 것이다. 본문 25권과 부록 1권으로 되어 있다.
- 9) 곧 『河南程氏外書』이다. “유서”와 마찬가지로 어록이나, 각 문인들이 기록한 내용에 대한 拾遺이다. “유서”와 달리 인물별로 분류되어 있다. 1173년(乾道 9)에 주희가 목차를 정하고 오류를 바로 잡아 필사를 완성하였다. “유서”와 “외서” 모두 문인들의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는 성격이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서”를 따로 둔 이유에 대해 주희는 문인들 기록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 목록에서 밝히고 있다(以爲外書, 夫先生之言, 非有精粗之異, 而兩書皆非一手所記, 其淺深互拙, 又未可以一槩論, 其曰外書者, 特以取之之雜, 或不能審其所自來. 其視前書, 學者尤當精擇, 而審取之耳.). 12권으로 되어 있다.
- 10) 정호 · 정이의 시문집인 『河南程氏文集』으로, 『明道先生文集』 5권과 『伊川先生文集』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 “유서” · “외서” · “문집”에 대해서는 최석기, “解題,” 『譯註二程全書』 1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8), 17-24에 상세하다.
- 11) 정호 · 정이가 경전에 대해 해설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8권(易說, 書解, 詩解, 春秋傳, 禮記, 論語說, 孟子解, 中庸解)으로 되어 있다.
- 12) 자는 可大, 호는 柏軒 · 容思이다. 陝西省 蘭州 출신이다. 國子監을 거쳐 1454년(景泰 5) 진사가 된 후 山東省 福山縣의 知縣을 역임하였다. 성화 연간에 萊州府의 知府가 되었다.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서원을 건립하고 『五經』을 해설하였으며, 『小學』을 간행하여 배포하는 등 민중의 교육에 힘썼다.
- 13) 丁丙, 『善本書室藏書志』 卷15 子部.
“河南程氏遺書二十五卷 附錄一卷(中略) 明成化刊本. 少保兼華蓋殿大學士南陽李賢校正, 國子監監丞伊洛閻禹錫重輯, 翰林院編修泌陽焦重校, 南陽知府太原段堅校刊. 前有成化元年九月 柱國少保吏部尚書李賢序曰, 今去二程四百餘年, 學者不見二程全書, 天下缺事無大於此. 國子監承閣禹錫倦倦訪求二程遺書, 盡得其書而集之, 欲梓而傳.(中略) 今吾友萊州郡守金城段公, 服闋謁選改守南陽, 願針梓以廣其傳.”

가 1486년(성화 22)에 편찬한 「秘閣書目」에는 「정씨유서」·「정씨문집」·「정씨수언」·「정씨외서」가 기재되어 있다. 「이정전서」는 현전하는 명대의 주요 서목을 수록한 「宋元明清書目題跋叢刊」(中華書局編輯部 編, 北京: 中華書局, 2006) 중 晁瑿(1507-1636)의 장서 목록인 「晁氏寶文堂書目」과 范欽(1506-1585)의 장서 목록인 「四明天一閣藏書目錄」에서 확인된다.¹⁴⁾ 그러나 이 두 서목은 물론, 16-17세기에 작성된 대부분의 私藏目錄에는 개별 서적이 더 많이 확인된다.

이처럼 주로 개별적으로 전해지고 있던 이정서는 오랜 출판 침체기와 학문의 속화 및 심학화 경향 등을 통해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다가, 1476년에 처음 간행된 후 명대가 지속되는 동안 적어도 여섯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전본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¹⁵⁾

<표 1> 明版本 「二程全書」의 현전본 현황

번호	간행시기	간행자	권수	현소장처	참고사항
1	1476년(成化 12)	段堅	62권	南京圖書館	- 이하 성화본으로 지칭
2	1498년(弘治 11)序	李瀚	65권	中國國家圖書館, 北京大, 上海圖書館, 南京圖書館, 浙江圖書館, 日本 國立公文書館 등	- 이하 홍치본으로 지칭
3	1524년(嘉靖 3)序	李中·余祐	51권	上海圖書館 등	- 이하 가정본으로 지칭 - 傳增湘校跋本도 있음 (中國國家圖書館 소장)
4 ¹⁶⁾	1570년(隆慶 4)序	金立敬	51권	上海圖書館, 吉林大 등	
5	1592년(萬曆 20)序	蔣春芳	65권	中國國家圖書館	- 弘治本の 重刻本
6	1606년(萬曆 34)	徐必達	68권	中國國家圖書館, 고려대, 서울대 규장각, 성균관대 존경각, 일본 宮內廳 書陵部, 東京大 東洋文化研究所, 靜嘉堂文庫 등	- 이하 1606년 간본으로 지칭 - 17세기 조선 및 일본에서 간행됨

성화본은 앞서 언급한 이한의 서문을 통해, 책판이 궁벽한 곳에 있고, 글자가 닳아서 널리 유포되지 못했다고도 하였다.¹⁷⁾ 그리고 陳宣 역시 서문에서 성화본이 남양에서 간행되긴 했으나, 그 곳 사람들

14) 여기에 수록된 서목 중 15-17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관청 혹은 개인 소장 목록 20건만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특정 장르의 서적만 기재된 것과 史志는 제외하였다.

15) <표 1>은 中國古籍總目編纂委員會 編, 「中國古籍總目」(北京: 中華書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 중 필자가 실제로 확인한 홍치본의 서지사항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1606년 간본은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9)에 상세하다.

16) 1570년경 金立敬 간본과 1592년 蔣春芳 간본은 실물이나 관련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17) 李瀚, “重刊二程全書序”.

“天順間國子監丞洛陽閻君子, 與求得四書及臨川譚元之所蒐輯遺文遺事, 合爲一書, 大師南陽李文達公題曰二程全書, 而爲之序. 今學士泌陽焦君爲編修, 時嘗爲校正南陽知府陽曲段君, 可久實刊行之. 二先生之書至是亦昌矣. 然板留偏郡, 字多漫漶, 行亦不廣, 學者憾焉.”

역시 입수하거나 본 사람이 적다고 하였다.¹⁸⁾

홍치본의 간행 경위는 이한의 서문에 언급되어 있다. 河南監察御史 이한은 일찍이 성화본을 취하여 家藏本과 참고하여 판각하고자 하였으나 여력이 없던 때에 마침 명을 받고 하남 지역을 순찰하게 되었다. 그는 정호·정이의 옛 터에 들러 다시 한 번 간행에 대한 뜻을 세우고는 실행에 옮겼는데, 각 책을 여러 이들에게 증보 및 교정을 가하게 한 후, 진선에게 간행을 맡겼다.¹⁹⁾ 진선 역시 순찰은 이한이 자신에게 간행과 유포를 맡겼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²⁰⁾

이 책은 16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간행된다. 그 중 가정본은 李中이 벽지의 학교에 있는 士人中 이 책을 본 이가 매우 드물어 학관에게 간행을 명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의 동료인 余祐가 督學을 겸하면서 간행을 매듭지었음이 서문에 언급되어 있다.²¹⁾ 이를 통해 이 책은 학교에서 교재로 쓰기 위해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홍치본 만큼은 유포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판본 역시 16세기에 조선에서 간행되었다.

17세기에 들어와서는 과거 시험을 담당하는 考功員外郎 徐必達(1562-1645)²²⁾이 1606년에 이 책을 『周張全書』·『邵子全書』와 함께 간행하였다. 그는 『이정전서』의 서문에서 늘 이 책의 선본이 없는 것을 애석하다고 하면서 錦山(江蘇省)의 高雲從에게 中州本을, 武林(浙江省 杭州)의 葛水鑑에게는 五羊本을 빌려 서로 대조해보았다고 하였다. 그 결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중주본에는 “경설”이 없고, 오양본에는 “易傳”²³⁾이 없다고 하였다.²⁴⁾ 이를 통해 1606년 간본은 적어도 두 종류의 판본이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 中州는 河南의 옛 지명이기 때문에 중주본은 성화본과 홍치본 모두 가능성이 있으나, 두 판본 모두 “경설”은 있고 “역전”은 없기 때문에 가려내기 어렵다.

五羊은 廣州의 또 다른 지명이다. 다음의 <표 2>는 각 현전본에 수록된 목차를 제시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경설”은 없으나 “역전”이 있는 판본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현전본을 확인한 것이

18) 陳宣, “重刊二程書後序”.

“但其全書雖刻于南陽, 洛人亦少得而觀之. 況其偏鄉下邑吾徒, 不能以無負也.”

19) 李瀚, “重刊二程全書序”.

“嘗欲取南陽本, 與家藏舊本參證梓之, 而力有所不逮頃者, 奉命來按河南, 親歷先生故址, 謀酬初志, 訪得各本, 遂屬參議康君孝隆, 重爲編輯, 僉事彭君性仁復從, 而校正焉. (中略) 書凡六十五卷繕寫既完, 河南知府東嘉陳君文德, 樂承繡木之任.”

20) 陳宣, “重刊二程書後序”.

“適巡按河南監察御史泌水李公, 突然以斯文爲己任, 尋以二程全書, 屬宣駁梓, 以傳不朽.”

21) 余祐, “二程全書序”.

“廣右督學李憲副中, 因念地在僻遠庠序士子, 罕見二夫子全書. 爰命學官刊梓未完. 乃以憂去, 祐爲僚友, 兼督學政書成, 而教諭林文炳等請序.”

22) 浙江省 秀水縣(지금의 嘉興) 출신으로 1592년(만력 20) 진사에 급제한 후 太湖知縣 등의 지방관과 南京兵部侍郎 등을 역임하였다. 시에 능하고 理學에 통달하였다. 저서에 『正蒙釋』, 『南州詩說』, 『南京都察院志』 등이 있다.

23) 정이가 해설한 『周易』이다. 上經과 下經이 각각 상하 2권이 수록되어 있다.

24) 徐必達, “刻二程全書序”.

“余每讀二程先生書, 惜無惜本. 嘗從同邑樂之初錫山高雲從, 假中州本, 又從武林葛水鑑, 假五羊本, 彼此參訂, 庶無甚舛. 然五羊本闕經說, 中州本載經說矣, 不載易傳.”

아니므로 추론하기 어려우나, 현전본 이외의 판본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2 명판본 「이정전서」의 체제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치본의 중간본이라는 1592년경 간본을 제외하면 판본의 계통은 크게 5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각 판본의 권수에 차이가 있다. 이는 곧 목차가 판본마다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원본을 직접 확인한 홍치본과 1606년 간본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2> 각 명판본 「이정전서」의 목차 비교

간행 시기	1476년 (成化 12)	1498년 (弘治 11)	1524년 (嘉靖 3)	1570년 (隆慶 4)	1606년 (萬曆 34)
권수	62권	62권	51권	51권	68권
목차	遺書 25卷 (附錄 1卷) 外書 12卷 經說 8卷 明道先生文集 5卷 伊川先生文集 8卷 附錄 3卷 後序 1卷	插圖 및 贊 遺書 25卷 (附錄 1卷) 外書 12卷 經說 8卷 明道先生文集 5卷 伊川先生文集 8卷 文集拾遺 1卷 續附錄 2卷	插圖 및 贊 遺書 25卷 (附錄 1卷) 外書 12卷 文集 12卷 遺文 1卷	遺書 25卷 外書 12卷 文集 12卷 附錄 1卷 續附錄 1卷	插圖 및 贊 遺書 28卷 (附錄 1卷) 外書 10卷 粹言 2卷 經說 8卷 周易傳義 4卷 明道先生文集 5卷 伊川先生文集 8卷 遺文 1卷 續附錄 1卷

기본적으로 “유서”·“외서”·“문집”이 수록되어 있는 가운데, 그 외는 판본마다 차이가 있다. 홍치본 편찬에 참여한 彭綱은 後序에서 원래 권1 앞 목록 뒤에 程端中的 자서가 있었는데, 성화본은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성화본도 기존의 내용에 편집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²⁵⁾

홍치본 역시 목록의 주석과 서문을 통해 성화본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권1 본문 앞에 정호·정이의 초상과 찬을 실었고, 『정씨문집』의 異本에 수록되어 있는 “文集拾遺”를 새롭게 추가하여 胡氏本의 오류에 대한 주희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²⁶⁾ 또한 성화본에서 後序 1권이었던 부분을 두 개의 권으로 나누고 각각 1편과 8편을 늘려 “續附錄”으로 재편성하였다.

25) 彭綱, “題重刊二程全書後”.

“伊川文集目錄後, 元有程端中自序, 舊本削去.”

26) 譚善心, “文集拾遺目錄”.

“右程子遺文遺事一卷, 善心所蒐輯, 可繕寫. 始慮世傳胡氏本猶未盡善, 而朱子改本, 惜不可見也.”

彭綱, “題重刊二程全書後”.

“并考他本, 增其所未備, 爲文集拾遺, 朱子辨胡本.”

이에 대해 팽강은 기존의 내용에 담선심의 자서 1편과 ‘太中傳’ 이하 8편을 추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²⁷⁾ 이처럼 홍치본은 성화본을 비롯하여 기존에 전하던 관련 서적들의 내용과 체제에 변화를 주어, 보다 많은 내용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홍치본의 체제는, 정도 차이는 있으나 이후 판본의 체제에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606년 간본은 전반적으로 홍치본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유서”와 “외서”의 권수가 다르다. “유서”는 3권이 더 추가되어 있고, “외서”는 2권이 감소되어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본문은 동일한데, 1606년 간본에서 권수가 조정된 것뿐이다. “외서”의 경우, 홍치본의 제4 程氏學拾遺와 제5 馮氏本拾遺가 권33, 제8 遊氏本拾遺와 제9 春秋錄拾遺가 1606년 간본에는 하나의 권이 되어 제36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유서”의 여덟 편의 부록 중 明道先生行狀이 홍치본에는 편명만 있고 내용이 없는 반면, 1606년 간본에는 내용이 채워져 있으며, 文人朋友敘述 앞에 서문이 추가되어 있다.

“明道先生文集” 및 “伊川先生文集”의 경우, 홍치본과 1606년 간본은 각각 수록 卷題에 차이를 보인다. 홍치본은 詩, 奏筭表狀, 書·記·祭文·行狀, 墓誌, 그리고 마지막은 제목이 없다. 반면, 1606년 간본은 銘詩, 表疏, 書記祭文行狀, 墓誌, 程文이라 되어 있다. 또한 권1에 가장 처음 수록된 顏樂亭이 1606년 간본에서는 顏樂亭銘이라 되어 있으며, 시의 순서가 일부 조정되어 있다.

“이천선생문집”의 경우, 홍치본은 奏疏, 表疏, 學制, 雜著, 詩, 書啓, 禮, 行狀·墓誌·祭文, 墓誌·家傳·祭文인 반면, 1606년 간본은 上書, 表疏, 學制, 雜著, 書啓, 禮, 行狀·墓誌·祭文, 墓誌·家傳·祭文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홍치본에 수록된 내용이 1606년 간본에는 빠지거나, 제목에 수정을 가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

홍치본의 “문집습유”는 1606년 간본에서 가정본 이후의 변화를 따라 제목이 “遺文”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록 내용 중 新增二篇의 上仁宗皇帝書와 祭姪端本文이 1606년 간본에서는 삭제되었고, 각 편의 闕文 여부, “易傳”의 수록 여부를 편명 아래 세주로 나타내었다.

“속부록”은 두 개의 권 중 1606년 간본에는 권2 宋史程珦傳이 삭제되어 1권으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1606년 간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정수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楊時(1053?-1135?)가 訂定하고 張栻이 편찬한 것인데, 학문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 사람의 언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에서는 道, 學, 書, 政, 事, 권하에서는 天地, 聖賢, 君臣, 心性, 人物에 대해 각각 성리학적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따라서 1606년 간본은 기존의 판본마다 출입이 있던 목차를 모두 포괄하면서 “수언”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전서로서 보다 충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27) 彭綱, “題重刊二程全書後”.

“舊本繫題後序, 今增入譚善心自序一篇, 并太中傳以下八篇, 爲續附錄.”

3. 17세기 조선 및 일본에서의 수용 양상

3.1 조선에서의 수용

3.1.1 17세기 이전 조선 간행 명판본

이정서가 처음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는 알기 어려우나, 현재 알려진 기록 중 『成宗實錄』에서 확인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에 따르면, 1481년(成宗 12) 12월 28일에 중국에서 보낸 6건의 책 중 『정씨유서』가 포함되어 있다.²⁸⁾ 이는 시기적으로 앞서 언급한 1472년 장찬이 간행한 판본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정전서』의 경우, 1515년(中宗 10) 11월 2일 홍문관 부제학 金謹思(1466-1539)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서적이 적으니 국내외로 적극적으로 서적을 입수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록이다. 그가 언급한 희소하거나 없는 서적 중에 『이정전서』도 있었는데, 이 책은 특히 관서에 소장된 바 없이 개인의 장서로만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책들을 일실될 것에 대비하여 인쇄를 통해 널리 유통시키자고 하였다.²⁹⁾ 이를 후인 11월 4일 중종은 세종 때에 비해 간행되는 서적과 본문의校讎가 질적으로 떨어짐을 한탄하면서 김근사가 언급한 서적의 간행을 명한다.³⁰⁾ 이 기록을 통해 적어도 『이정전서』가 16세기 초에는 조선에 전해져 있었고, 개인만이 소장하고 있는 희소한 책이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16세기까지 간행된 조선본 『이정전서』는 현존본을 통해 적어도 목판본과 甲辰字混入補字本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각 간본의 간행 시기 및 과정에 대해 언급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간본들이 앞서 언급한 기록과 관련 있는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28) 『朝鮮王朝實錄』成宗 12年 12月 28日(戊辰).

“欽賜資治通鑑·程氏遺書·眞西山集·事文類聚·致堂管見·宋朝文鑑各一部, 銀一百兩.”

29) 『朝鮮王朝實錄』中宗 10年 11月 2日(甲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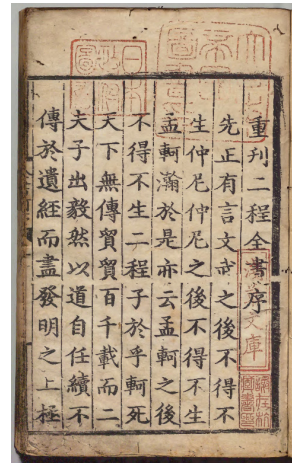
“又以館意啓曰, 我國書籍稀貴, 秘藏所無者亦多. 如朱文公集·資治通鑑·胡三省註·朱子語類·三國誌·國語·戰國策·南北史·隋書·梁書·遼史·金史·伊洛淵源·歐陽公集·眞西山讀書記·五代史·元史等冊, 皆於本館, 只存一件, 而如二程全書, 則私處所有, 而本館全無者也. 此等書冊, 視實學, 雖有間, 然若遺亡散失, 則後難得之, 請皆印出, 廣布中外. 且凡稀貴書冊, 令各道量其大小之力, 而刻木本, 使人人得皆印之, 何如?”

30) 『朝鮮王朝實錄』中宗 10年 11月 4日(丙戌).

“我世宗朝印出書籍, 非但紙品甚佳, 打印亦極其精, 近古書冊之美, 無踰於此. 其後浸不如古, 校書失職, 近來尤甚, 紙滯墨澆, 校讎亦慢, 以致書籍拙惡, 予竊痛恨. 其令別設都監, 量擇勤謹人爲堂上郎官, 弘文館所藏朱文公集·眞西山讀書記·朱子語類·資治通鑑·胡三省註·歐陽文忠公集·三國誌·南北史·國語·梁書·隋書·五代史·遼史·金史·元史·戰國策·伊洛淵源錄及私藏二程全書等冊, 監掌印出, 而八道中鉅道, 則卷帙多數書籍, 小道則卷帙不多書籍分定, 開刊節目及都監名號, 并磨鍊. 資治通鑑唐本, 字樣細大適中, 以此改鑄銅字. 且甲辰甲寅等字訛刊者, 悉令改鑄.”



<그림 1> 16세기 조선 목판본
(고려대 소장)



<그림 2> 1498년序 명판본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우선 목판본은 위의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반엽 당 행자수와 판식이 홍치본과 동일하며, 수록된 서문 역시 일치하고 있어, 홍치본을 복각한 것으로 판단된다.³¹⁾ 그런데 『고사촬요』에는 이 책이 1568년(宣祖 1) 을해자본부터 대구조에서 확인된다. 갑진자훈입보자본을 저본으로 한 목판본으로 현전본 중 전해지는 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한다면 대구 간본은 홍치본의 복각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³²⁾ 그렇다면 이 책은 68권으로 권수가 비교적 많은 서적이므로 앞서 살펴본 중종의 지시와 같이 경상감영에서 담당하여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정본의 간행 시기가 빨라도 발문 작성 시기인 1524년이므로, 『중종실록』에 처음 언급된 시기보다 9년이 늦다. 따라서 실록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은 홍치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裴龍吉(1556-1609) · 趙穆(1524-1606)의 舊藏本³³⁾은 이 판본이 16세기에 주로 유통되고 있었음을 확실히 말해준다.

한편, 1524년 여호의 서문이 수록된 갑진자훈입보자본은 이 서문을 유일하게 수록하고 있는 가정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中國古籍總目』에는 가정본이 51권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³⁴⁾ 갑진자훈입보자본은 65권이다. 갑진자훈입보자본은 “유서”와 “외서” 외에도 “경설” 8권, “명도선생문집” 5권, “이천선생문집” 8권, “문집습유” 1권(부록 1권), “속부록” 1권이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모두 홍치본에 수록된 내용들인데, 물론 추후에 가정본을 직접 확인한 후 판단해야겠으

31) 해당 간본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32) 다만 필자가 확인한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 홍치본(298-136)은 “重刊二程全書序”의 마지막 면에 작성자의 官銜이 없는데, 고려대 소장 조선 목판본(만송貴100A)에는 온전히 새겨져 있다. 또한 내각문고본의 책말에 “瓶伊洛淵源□□”이 수록되어 있으나, 조선본에는 없다. 따라서 내각문고본은 홍치본의 後修本으로, 조선본의 저본과는 다른 계통인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홍치본의 다른 현전본을 확인한 후 판단하고자 한다.

33) 고려대 소장 조선본은 같은 판본인 배용길과 조목의 구장본이 합질된 것이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하의 해당 간본도 마찬가지이다.

34) 中國古籍總目編纂委員會 編(2010), 76.



<그림 3> 16세기 간행 갑진자훈입보자본(고려대 소장)

나, 조선에서 간행될 때 선행하고 있던 홍치본의 내용이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갑진자훈입보자본의 정확한 간행 시기는 알기 어려우나, 고려대 만송문고에 이 책의 내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제1책 책수의 앞면지에 내사기가 남아 있어, 1566년(명종 21) 朴承任(1517-1586)에게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내사된 시기가 반드시 간행된 시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간본이 16세기 중반에는 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책에는 그의 손자인 朴檜茂(1575-?)의 印記가 있고, 또 다른 고려대 소장본에는 權斗寅(1643-1719)의 인기가 보인다. 권두인 구장본을 박승임 내사본과 대조해보니 함께 간행된 활자본이었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때 일본에 약탈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은 갑진자훈입보자본은 17세기에

도 계속 소장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본 宮内廳 書陵部に 辛璉(1517-1573)의 舊藏本이 소장되어 있다. 16세기 중후반에 주로 지방관을 역임한 그는 그의 직책과 교육관계를 통해 여러 서적들을 입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속활자본에는 「이정전서」뿐만 아니라 乙亥字本 「增續會通韻府群玉」(일본 尊經閣文庫 소장)과 甲寅字混入補字本 「大學衍義」(일본 名古屋市蓬左文庫 소장)도 있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간본을 통해 16세기 조선에는 홍치본과 가정본이 모두 전해져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홍치본은 지방에서 명판본을 그대로 복각하는 형식으로 간행된 반면, 가정본은 교서관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유통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이정전서」가 조선에서 유통되고 있던 중에도 「하남정씨유서」와 「二程先生傳道粹言」이 별도로 간행되었다. 1583년(선조 18) 목판본 「고사촬요」의 순천조에 「정씨유서」가 확인된다. 현전본을 통해 李楨(1512-1571)이 순천부사 재직 중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³⁶⁾

「이정선생전도수언」은, 「중종실록」 1518년 11월 22일에 金安國이 북경에서 사온 유학서를 진상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도 포함되어 있다.³⁷⁾ 이 책의 조선본에는 1562년(명종 17)에 작성된

35) 辛璉 장서에 대해서는 이유리, “일본 소재 辛璉 藏書의 서지학적 고찰,” 『大東漢文學』 제51집(2017), 5-45에 자세하다.

36)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359-360.

37)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1月 22日(戊午).

“工曹判書金安國啓曰, 臣到北京, 自念聖上留心性理之學, 大夫士亦知向方, 思得濂、洛諸儒全書及他格言至論,

이황의 발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황은 이 책을 이정과 함께 교정한 후 다른 책과 함께 監司 南宮忱(1513-1573)에게 간행을 청하였고, 옆 郡과 분담하여 간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³⁸⁾ 『고사촬요』 1585년(선조 18) 목판본에는 陝川에 이 책이 확인된다. 현재 일본 名古屋市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이 두 책 모두 이정이 관여한 것으로, 그가 간행한 서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행록류에 해당한다.³⁹⁾ 이정은 이러한 서적들을 통해 송대부터 명대까지의 성리학자 계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⁴⁰⁾

그밖에 『이정전서』에 수록된 내용은 아니나, 『二程封事』가 병자자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현전본이 서울대 규장각과 호사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3.1.2 17세기 이후의 수용 양상

앞서 언급한 고려대 소장 권두인 구장본과 같이 16세기에 간행된 서적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일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전본 중 장서인과 판종을 통해 17세기 이후 새로운 판본이 조선에 전래되어 소장 및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17세기 이후 조선의 명판본 『이정전서』 수용 방식

번호	판종	소장자	印記	현소장처	참고사항
1	명판본 (1606년 간본)	洪柱元 (1606-1672)	達中, 洪柱元, 豊山	서울대 규장각	
※		侍講院	侍講院	미상 ⁴¹⁾	소장 시기 미상
2	조선 번각본	金萬基 (1633-1687)	宣賜之記	이화여대	1686년에 내사됨
3		崔重泰 (1656-1712)	月城世家, 崔重泰章, 重汝□	성균관대 존경각	이외에 후대의 장서인도 있음
4		鄭羽良 (1692-1754)	鄭羽良子揮章, 學南	일본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5		正祖 (1752-1800)	弘齋, 震章, 廂庫	서울대 규장각	
※		弘文館	弘文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시기 미상
6		(위의 後修本) 侍講院	侍講院	서울대 규장각	後修 시기 미상
7	목활자본 (을해자체훈련도 감자본)	鄭知和 (1613-1688)	禮卿, 鄭知和印, 蓬萊世家	국립중앙박물관	
8		朴長建 ⁴²⁾ (1628-?)	高靈人, 朴長建氏, 立士	국립중앙도서관	

以資講習, 而留帝都未久, 未得廣求博搜, 只以所得上進. (中略) 所謂傳道粹言者, 乃編集兩程先生所言之書也.”

38) 李滉, 『退溪集』 卷43, 傳道粹言跋.

“嘉靖庚申歲, 吾友泗川李君剛而尹茲東都, 礪城宋公寅出是本, 囑以刊行. 顧其爲書頗多刊缺, 李君不辱與滉往復校訂, 乃並與他書而請于監司南宮公忱, 令與旁郡分刻焉.”

39) 우정임,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 제38집(2016), 282.

40) 우정임(2016), 304.

<표 3>을 통해 현전본에 남아 있는 인기를 가지고 적어도 세 종류의 간본이 17세기 조선에서 새롭게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간본은 각각 명판본을 그대로 소장하거나, 이를 번각하거나, 기존에 유통되던 판본의 내용에 새롭게 전해진 판본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는 곧 17세기 조선에서의 명판본 수용 양상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① 명판본을 소장한 경우

1606년 간본이 조선에 전래된 경위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1606년 간본 중에는 洪柱元의 장서인이 날인된 명판본이 있다. 홍주원은 1623년(仁祖 1)에 선조의 딸인 貞明公主와 혼인하여 永安尉에 봉해졌다. 그는 1647년 사은사, 1649년(孝宗 1) 告訃請謚請承襲使, 1653년 사은사, 1661년 陳慰兼進香使로서 중국에 네 차례 사행을 다녀왔다. 현재 그의 장서인이 보이는 중국본이 고려대 등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⁴³⁾ 그는 네 차례의 사행을 통해 북경에서 직접 책을 구매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전서』 역시 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1606년 간본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待講院’이라는 인기가 있는 1606년 간본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시강원에서 소장한 시기가 17세기부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관청에서도 명판본을 그대로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강원은 왕세자의 교육을 맡고 있는 관청이라는 점에서 보다 주목된다.

② 명판본을 번각한 경우

해당 판본은 화엽어미 등 명판본의 판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행자수가 같으며, 책수에 수록된 서필달 및 葉向高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수록 권수가 68권이라는 점으로 저본이 1606년 간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권42-45에 해당하는 “周易傳義”가 빠져 있다. 이 부분은 권수 앞에 해당 목록이 없고, 총목에도 권제 아래 細註로 ‘不錄’이라 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은 ‘二程全書卷之四十二之五/(低1格)易傳四篇’이라 되어 있다. 그 뒷면에는 권미제가 있다.

간행 관련 기록이 없어, 초간 시기 등 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이화여대 도서관에 1686년(康熙 25) 김만기 내사본이 소장되어 있다.⁴⁴⁾ 이를 통해 늦어도 1686년에는 교서관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1) 중국의 경매 업체인 西泠印社拍賣有限公司에 출품된 바 있다.

(http://www.xlysauc.com/auction5_det.php?id=80496&ccid=665&n=2581)

42) 박장건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매우 적으나, 『甲午式年司馬榜目』에서 그가 한성에 거주하고 1654년(孝宗 5) 甲午式年試에서 진사 3등 28위로 급제하였음이 확인된다.

43) 고려대 소장본 중 『史記』(육당 B3 B15) 및 『皇明從信錄』(만송B4B59)이 해당된다. 그리고 조선본 『朱子大全』(D1 A1288)에도 동일한 장서인이 확인된다.

44) 內賜記: 康熙二十五年十二月十七日/內賜光城府院君金萬基二程全書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 [手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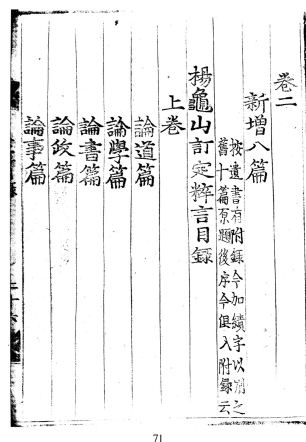
이 판본은 현전본에 보이는 인기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정조, 그리고 시강원 및 홍문관과 같은 중앙 관서에서도 소장하고 있어, 비교적 널리 유통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판본과 그 번각본을 모두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번각본 중 권1 앞에 수록된 정호·정이의 초상이 지워져 있는 것이 있다. 초상이 있는 판본과 대조해보니 초상의 제목 등 글자 모양에 차이를 보여, 단순히 그림만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새롭게 판각하여 바뀐 後修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본의 현전본 중에는 홍문관 장서인이 찍힌 것이 있다. 이 홍문관 구장본에는 총목이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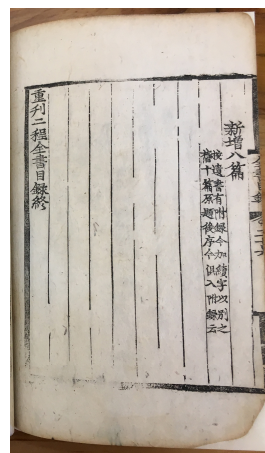
③ 두 종류의 판본이 합쳐진 경우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이 해당된다. 이 간본의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훈련도감자가 제작되어 사용된 시기가 17세기 전반이고, <표 3>과 같이 현전본 중 17세기 인물인 정지화와 박장건 구장본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17세기에 처음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李景奭(1595-1671)이 작성한 沈詒(1571-1654)의 행장에는 그가 교서관 제조를 역임할 당시 「이정전서」를 간행했다는 내용이 있다.⁴⁵⁾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가 간행한 것이 번각본인지, 훈련도감자본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함께 언급된 서적 중 「韻會玉篇」·「小學」·「參同契」·「名世文宗」이 훈련도감자본으로 간행된 바가 있다.⁴⁶⁾



<그림 4> 을해자체 훈련도감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5> 16세기 조선 목판본
(고려대 소장)

45) 李景奭, 「白軒集」 卷38, 諡狀-吏曹判書青松君沈公諡狀.

“校書爲館，專管書籍之印，歲入最夥，而爲提調者，多不留意，一委諸下輩之手，公之兼察也。提修鑒典，廣布書史，如韻會，周禮，小學，史略，史漢一統，二程全書，參同契，名世文宗，國朝寶鑑等書。皆公所命印者也。”

46) 송정숙,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 출판 활동,” 『서지학연구』 제42집(2009), 294-295.

행장의 내용상 그가 교서관 제조로 있었던 것은 1644년(인조 22)과 1652년(효종 3)으로 두 차례이다. 이 중 언제인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17세기 중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간본은 비록 판식은 다르나, 서문과 본문 내용을 통해 기본적으로 홍치본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홍치본에 없는 “수언”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만은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1606년 간본을 참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권1 앞의 목록에는 기존의 목록 끝에 이어서 1606년 간본의 “楊龜山訂定粹言目錄”이 권수만 제외하고 추가되어 있다.

3.2 일본과의 수용 양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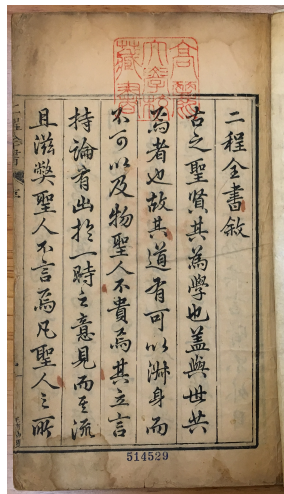
16세기까지 일본에서 『이정전서』가 전래 및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현전본은 물론, 기록이 없다. 일본에도 늦어도 고대부터 중국에서 서적이 유입되었고, 성리학서의 수용은 17세기 이후이므로 전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정전서』의 수용을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林羅山(1583-1657)이 1604년(慶長 9)까지 읽은 서적의 목록인 『既見書目』이다. 여기에는 서명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조선에서 간행된 『이정전서』의 여러 간본 중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적어도 1606년 간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서목에는 조선인 편저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조선 간본 혹은 조선을 거친 명판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에서 간행된 시기는 간기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670년(寬文 10)에 간행된 『增補書籍目錄』을 시작으로 이후에 편찬된 서사의 서적 목록에서 계속 확인된다. 따라서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상업 출판으로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和刻本에는 서문의 필체와 模刻印記, 판심의 각수명과 숫자 등이 원본과 동일하게 옮겨져 있다. 아래의 <그림 6>-<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각본은 훈점을 제외하면 명판본을 거의 그대로 복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선 번각본은 내용만 옮긴 것이므로, 화각본은 1606년 간본의 복각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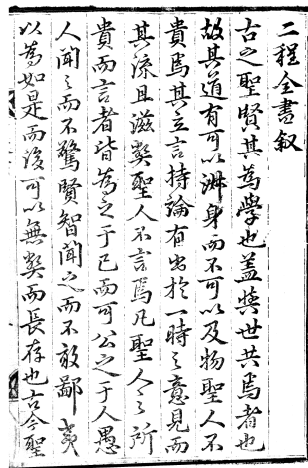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 번각본과 마찬가지로 화각본에도 권42-45에 해당하는 『周易鄭氏傳』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총목에는 해당 부분에 ‘易傳闕’이라 되어 있고, “伊川易傳目錄” 역시 빠져 있다.⁴⁷⁾ 다만 1683년(貞享 1) 壽文堂에서 『伊川易傳』을 따로 간행하였는데, 권수제와 권차, 그리고 花口에 모두 『이정전서』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 林鵞峯(1618-1680) 구장 『주역전의』는 1606년 간본에서 분리된 것이다. 책말에는 1678년(延寶 6)경에 작성된 하야시 가호의 墨書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역전의』의 단행본이 없어 『이정전서』에서 분리한 후 라잔이 『주역전의 대전』에 매긴 훈점을 다시 옮겼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 권수의 첫 행을 도려내어 원래의 권수제 밑에 있던 “이천역전”을 권수제 자리로 옮기기까지 하였다. 이는 주희의 해설이 없는 원래의 본문을

47) 화각본의 자세한 서지사항은 이유리(2019), 100-102 및 304-305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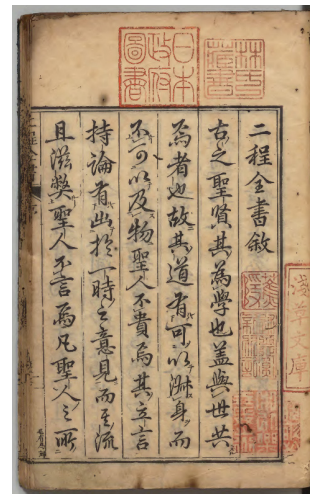
원했기 때문임을 그의 목서를 통해 알 수 있다.⁴⁸⁾



<그림 6> 명판본
(고려대 소장)



<그림 7> 조선 번각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8> 화각본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이상의 내용을 통해, 17세기 동아시아에서는 1606년 간본을 널리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본과 화각본의 판식을 통해 중국에서 각 국에 직접 전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당시 중국 서적을 조선에서는 사행을 통해 북경에서 개인이 직접 입수하였고, 일본에서는 주로 福建 지역에서 長崎로 서적이 직수입되어 개인 혹은 서사를 통해 입수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상기해보면, 당시 중국에서 1606년 간본이 북경과 강남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서필달이 이 책과 함께 간행한 다른 두 책이 조선에서는 모두 간행되지 않은 반면,⁴⁹⁾ 일본에서는 『주장전서』가 1675년(延寶 3)에 교토 서사인 武村新兵衛・田中長左衛門에서 간행되었고 『소자전서』는 간행되지 않았다.

또한 간행 주체에 있어서도, 두 나라의 출판문화사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관관으로 간행되었으나, 일본에서는 상업 출판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御書物方’라는 인기가 있는 화각본이 소장되어 있다. 御書物方은 막부에 소속되어 장서를 관리한 書物奉行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인기는 막부 직할 교육기관인 昌平坂學問所⁵⁰⁾의 구장본임

48) 大全與朱義合編，如左右手殆侔，親炙於二先生也。然取其義，不能無異同。先考就大全本，加訓點於左右，以識別之。余往年寫家點於本義，而不混程傳之解意，而又欲彰程傳之旨。然無特刻程傳之本，故拔易傳於二程全書之中，以爲別本，寫家點於傍，不混朱義，而各別並行，乃知傳義，不可偏廢也。

49) 다만 『奎章總目』에 『周子全書』・『張子全書』・『邵子全書』가 모두 확인된다.

50) 1630년(寬永 7) 林羅山이 上野忍岡에 설립한 문고에서 유래한다. 1691년(元祿 4) 將軍 德川綱吉에 의해 湯島(현재 도쿄 文京區)로 이전, 1790년(寬政 2)에 막부 소속이 되었다. 이곳 소장본은 林家本이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을 나타낸다. 이 책 역시 입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도 관 차원에서 소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두 나라 간본에 “역전”이 생략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주목된다. 두 나라 모두 1606년 간본을 직접 저본으로 하고 있다면, 각 국 간본 간의 직접 연관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생각해보면 조선의 경우, 당시 잇따른 전쟁으로 출판 여건이 열악했는데, “역전”은 『주역전의대전』 등과 같이 대체 가능성 서적이 있어 굳이 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당시 서사가 가장 큰 출판 주체였고, 『주역』에 대한 관심이 근세 이전부터 높았음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판매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상사적인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4. 結 論

정호·정이의 학문은 주희에 영향을 주어 성리학 이론의 핵심이 되었다. 그들은 후학들에게 존송되어 어록과 문집 등이 송대부터 간행되고 있었으나, 주희 사후, 성리학은 居敬窮理에 중점을 두는 한편, 원대 과거가 시행되면서 주희가 주석한 경서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명대에 편찬된 대전서로 인해 정주학의 심학화 및 속화는 보다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정서는 주자서에 비해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화 연간 이후 출판이 부흥하면서 그동안 출판되지 않았던 서적들이 재간되기 시작하였다. 『이정전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편집 및 간행된 것인데, 개별적으로 전하고 있던 이정서를 하나의 책으로 집성하고 그 내용에 교정을 가함으로써 보다 정호·정이의 학문을 완성된 형태로 보전하여 학문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완성된 이후 명대가 지속되는 동안 적어도 6차례 간행이 이루어졌고, 일부 판본은 16세기부터 조선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각 판본마다 체제와 내용 등에 변화를 보이는데, 특히 1606년 간본은 가장 많은 내용을 수록하여 전서로서 보다 완전한 형태가 되었다.

한편, 17세기는 삼국이 모두 성리학을 수용하고 있던 시기이다. 『이정전서』는 17세기에 간행된 명판본이 모두 조선과 일본에서 수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용 방식 역시 두 나라의 출판 체계가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조선의 경우, 당시 인물의 장서인과 『이정전서』 판본 수용이 이전 시기와 달라졌다는 사실을 통해 중국본 유입 및 수용 양상을 보다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전 시기까지 성리학이 수용되지 않았고 상업 출판이 중심이

현재 대부분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본과 동일한 인기가 날인된 것에는 이외에도 『玩鷗先生詠物百首』(京都大學 소장), 『官板大字全像批評三國志』(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소장), 『伊勢物語』(일본 國文學研究資料館 소장) 등이 있다.

되었던 일본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당시 각 국의 일반적인 중국 서적 입수 지역과 방법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중국에서의 유통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적교류사적으로 더욱 가치 있는 자료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든 명판본 『이정전서』의 현전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특히 가정본 실물 확인을 통한 갑진자혼입보자본과 관계 및 체제 변화 단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수용 양상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甲午式年司馬榜目」

魚叔權, 「攷事撮要」

徐浩修, 「奎章總目」

李景奭, 「白軒集」

丁丙, 「善本書室藏書志」

「成宗實錄」

「二程全書」

「中宗實錄」

「河南程氏遺書」(1472年序)

박길수. “명초 정주학파의 심학화 경향과 사상적 의의.” 『동양철학』 제39집(2013). 25-67.

송정숙.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 출판 활동.” 『서지학연구』 제42집(2009). 267-298.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339-367.

우정임.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 제38집(2016). 269-307.

이유리. “일본 소재 辛璉 藏書의 서지학적 고찰.” 『大東漢文學』 제51집(2017). 5-45.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9.

大木康 著,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소명출판, 2007.

井上進 著, 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역. 『중국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최석기. 『譯註二程全書』 1.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8.

황지영. 「명청 출판과 조선 전파」. 서울: 시간의 물레, 2012.

中華書局編輯部 編. 「宋元明清書目題跋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6.

中國古籍總目編纂委員會編 編. 「中國古籍總目」. 北京: 中華書局 ;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

井上進. 「明清學術變遷史:出版と傳統學術の臨界點」. 東京: 平凡社, 2012.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hn, Hyeon-ju. 2011. "A Study on Guam LeeJung's Publication of 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339-367.

Hwang, Ji-Young. 2012. *Publishing during Ming and Qing Dynasty and Spreading of Joseon*. Seoul: Si-Gan-Ui-Mullae.

Lee, Eury. 2017.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books in Japan had been owned by SHIN, LYEON." *DAEDONGHANMUNHAK*, 51: 5-45.

Lee, Eury. 2019.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Zhuzilogu books of Joseon Editions published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Park, Gil-Soo. 2013. "Study on Tendency of Being School of Mind and Ideological Significance for School of Cheng-Zhu in early Ming Dynasty." *Study on Eastern Philosophy*, 39: 25-67.

Song, Jung-Sook. 2009. "Printing and Publishing of Hunryondogam(訓練都監) in the 17th Centur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2: 267-298.

Susumu Inoue. 2013. *Chinese Publishing and Culture History* (Lee, Dong-Cheol et al. Trans.), Seoul: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Woo, Jeong-Im. 2016. "The Effects of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Guam(龜巖) Lee Jeong (李楨) on Establishing Confucian Orthodoxy(道統)." *Area and History*, 38: 269-307.

Yasushi Oki. 2007. *Publishing Culture in late Ming Jingnan* (Rho, Kyung-Hee, Trans.), Seoul: So-Myo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부록] 본고 대상 『二程全書』刊本 목록(간행시기 순)

1. 1492년(弘治 11)序 명판본(65卷, 明 康紹宗 輯, 陳宣 刊)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298-136, 明 謝肇淛(1567-1624) 舊藏)>

형태사항	주기사항
10冊(完帙) : 四周單邊, 有界, 半葉20.6x12.6cm, 上下向黑魚尾, 10行21字, 註雙行, 黑口, 插圖 : 25.8x17.0cm	表題: 二程全書 卷首題: 二程全書 重刊二程全書序: 弘治戊午冬十月朔 程太中公像, 太中公贊, 明道純公贊, 明道純公像, 伊川正公贊 重刊二程全書總目, 重刊二程全書目錄(第11張 缺) 題重刊二程全書後: 弘治戊午冬十月後學清江彭綱謹識 重刊二程全書序: 弘治戊午秋八月上丁日/賜進士出身中順大夫河南府知府東嘉陳宣書 瓶伊洛淵源□□ 印記: 謝在杭/藏書印(長方形), 淺草文庫(長方形, 雙邊, 楷書), 大日本/帝國/圖書印(正方形), 日本/政府/圖書(正方形), 晉安謝氏/家藏圖書(長方形), 昌平坂/學問所(長方形, 墨印), 享和癸亥(無郭)

2. [16세기 간행] 목판본(65卷, 明 康紹宗 輯, 陳宣 刊)

<고려대학교 소장(만송貴100A, 裴龍吉·趙穆 舊藏)>

- 2卷4冊(零本, “遺書”第1卷, “伊川文集”第59-62卷, “遺書”第19-25卷, “遺書附錄”1卷)

형태사항	주기사항
四周雙邊, 有界, 半葉19.5x14.2cm, 上下向黑魚尾(일부 2葉花紋), 10行21字, 註雙行, 黑口, 插圖 : 29.0x18.9cm	表題: 二程全書 卷首題: 二程全書 重刊二程全書序: 弘治戊午冬十月朔賜進士第文林郎巡按河南監察御史沁水李瀚書 程太中公像, 太中公贊, 明道純公贊, 明道純公像, 伊川正公贊 重刊二程全書總目, 重刊二程全書目錄 題重刊二程全書後: 弘治戊午冬十月後學清江彭綱謹識 重刊二程全書序: 弘治戊午秋八月上丁日/賜進士出身中順大夫河南府知府東嘉陳宣書 印記: 高麗/大學校/藏書(長方形), 瑟易堂(鐘形, 墨印), □□/書堂(外圓內正方形), 趙氏穆/□敬章(長方形)

3. [16세기] 교서관 간행 甲辰字混入補字本(65卷)

<고려대학교 소장(만송 貴 100C, 朴承任 舊藏)>

형태사항	주기사항
12冊(完帙) : 四周雙邊, 有界, 半葉21.9x15.1cm,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10行20字, 註雙行, 黑口, 插圖 : 29.5x19.0cm	表題: 二程全書 卷首題: 二程全書 內賜記: 嘉靖四十五年五月日/內賜承政院左副承旨朴承任二程全書一件/命除謝/恩/同副承旨臣朴(押) 二程全書序: 嘉靖三年甲申歲九月朔日後學鄱陽余祐謹書 重刊二程全書序: 弘治戊午冬十月朔賜進士第文林郎巡按河南監察御史沁水李瀚書 程太中公像, 太中公贊, 明道純公贊, 明道純公像, 伊川正公贊 重刊二程全書總目, 重刊二程全書目錄 重刊二程全書序: 弘治戊午秋八月上丁日/賜進士出身中順大夫河南府知府東嘉陳宣書 題重刊二程全書後: 弘治戊午冬十月後學清江彭綱謹識 印記: 高麗/大學校/藏書(長方形), 宣賜/之記(正方形), 錦□朴/氏/檜茂/書□寶(正方形)

4. [17세기] 훈련도감 간행 을해자체훈련도감자본(68卷)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海士 한 388, 李應翼 舊藏)>

형태사항	주기사항
12冊(零本) : 四周雙邊, 有界, 半葉22.8x15.8cm,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10行18字, 註雙行, 插圖 : 31.3x20.5cm	表題: 二程全書 卷首題: 二程全書 刻二程全書序: 萬曆丙午三月朔橋李後學徐必達書於銓曹書院 二程全書敘: 明南京吏部右侍郎後學葉向高謹叙 程太中公像, 太中公贊, 明道純公贊, 明道純公像, 伊川正公贊 重刊二程全書總目, 重刊二程全書目錄 印記: 李印/應翼(正方形), 完/山(正方形, 陰刻), □□/氏(長方形, 陰陽刻混合), □/菴(正方形), 해군/사관학교도서관/장서(正方形, 橫書)

5. [17세기] 간행 목판본(68卷, 明 徐必達 校刊)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中1449, 正朝 舊藏)>

형태사항	주기사항
16冊(完帙) : 四周單邊, 有界, 半葉22.4x15.8cm,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10行20字, 註雙行, 插圖 : 33.4x21.8cm	表題: 二程全書 卷首題: 二程全書 刻二程全書序: 萬曆丙午三月朔橋李後學徐必達書於銓曹書院 二程全書敘: 明南京吏部右侍郎後學葉向高謹叙 程太中公像, 太中公贊, 明道純公贊, 明道純公像, 伊川正公贊 重刊二程全書總目, 重刊二程全書目錄 印記: 弘/齋(橢圓形), 震/章(正方形), 廂庫(長方形, 楷書), 京城帝/國大學/圖書章(正方形, 小形), (正方形), 서울/大學校/圖書(正方形), 朝鮮總/督府圖/書之印(正方形) 제16책(卷64-68)은 補寫된

